

연중 제12주일

2024. 6. 23(나해) / 제2105호

진심
해적의리
조용히 하미리

마르코 4장 39절  

수원주보

연중 제12주일

입당송 | 시편 28(27),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 욥 38,1,8-11

화답송 |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 1 참조)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제2독서 | 2코린 5,14-17

복음 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마르 4,35-41

영성체송 |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 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1면 성화_정은정 아가다 作

음성지원QR

.....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연중 열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거센 돌풍을 만납니다. 걱정 속에 놓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호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이 멎고 호수는 고요해졌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모습 속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제1독서 욥기의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라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2독서 코린토 2서 말씀대로 우리를 다그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짓밟고 있던 그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새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 마음속 혼란을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향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글 | 김동우 바오로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잠투정 속 엄마의 음성과 품

글 | 강유빈 도미니코 신부(태평동 본당 주임)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딱 둘 뿐인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조카들’입니다. 많은 신부님에게 그러하듯, 저에게도 ‘조카들’은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기쁨과 사랑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첫째 조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조카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제 머리와 마음에, 또 핸드폰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중 첫째 조카와 관련된 ‘특별한 순간’ 하나를 꺼내 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밤에도 수시로 깨는 아기를 돌봐주고 어르고 달래주죠. 제 첫째 조카가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을 즈음의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8시’가 되자, 때가 된 듯 조카는 ‘잠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였던 조카는 눈을 감는 게 두려운 것처럼 잠투정을 꽤 요란하게 부렸죠. 아빠와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인 저까지 서로 번갈아가며 조카를 안아 달래줬지만 아가의 잠투정은 멈추지 않았고, 100일간 그 모습을 지켜보아 온 ‘아빠’는 이렇게 애기했습니다. “이제 ‘마의 시간’이 시작되었어. 이 시간에는 누가 안아도 소용이 없어. 지금은 오직 (엄마의 역할을 도맡은) ‘할머니’만이 달래줄 수 있어.” 결국, 조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과 토닥여 주는 ‘손길’에 서서히 차분해졌고, ‘함마, 맘마, 마, 마...’라고 웅얼이하다가 곤히 잠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래아 호수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에서 ‘갈릴래아 호수를 건너감’은 ‘인생 여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풍랑’을 맞이하죠. 실제로 갈릴래아 호수에선 1년에 4~5번 정도 3~4m 이상의 큰 파도가 치는데, ‘풍랑을 맞이함’은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할 수만은 없음을, 때론 시련에 맞닥뜨림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풍랑’에 제자들은 힘겨워하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호수를 향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복음은 전하죠. 여기서 “조용히 하여라!”라고 꾸짖으심은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아주 고요해졌다.”라는 구절에는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숨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가 되면 갈릴래아 호수에 ‘풍랑’이 이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도 ‘시련’이라는 ‘원치 않는 손님’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은 ‘시련’을 맞이한 우리에게, 잠투정으로 칭얼대는 아기를 품에 안아 달래주는 엄마처럼, 우리의 힘겨움을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손길을 건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 잘못된가요
사랑을 나누려고
임신 걱정 없이

글 | 박찬호 필리핀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총장)

“지금의 나를 위해, get time, get love, get smile ***!”
“아직은 이루고 싶은 꿈이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그녀는 ***을 먹습니다.”

위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 피임약 이름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채 광고 문구를 보면 몸에 좋은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요.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TV나 라디오에서 피임약이나 콘돔 광고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피임약에 광고를 대중매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시간에도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와 성교육의 요점은, 피임이 임신 걱정 없이 남녀가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니, 피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피임약은 남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여성의 미래를 지켜주는 명약일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피임약 사용을 반대할까요?

우선,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녀 출산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산아제한’의 개념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교회는 부부간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한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피임은 부부 사랑의 완전성을 이루는 출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혼인성사의 본질에 위배되고, 생명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의 입장은 종종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낙태처럼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교회가 굳이 이런 사적인 부분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피임을 단죄하는 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회칙 「인간생명 (Humanae vitae, 1968년)」이 반포된 후 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적잖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에서도 모든 신학자가 동의했던 것은, 자녀가 부부 사랑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과 부부의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의 가치관이 달라져도 사랑이 생명을 지향하고 후원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안전한’ 사랑이 과연 참된 사랑일 수 있을까요?

피임에 ‘안전한, 성공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등의 긍정적인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아직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반생명적 인식과 경제논리를 주입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임의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낙태약을 ‘응급피임약’으로 칭하려는 시도 또한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것은 부부에게 큰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 년 전 성모 마리아의 모험과 성 요셉의 동기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하는 사랑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The Crucifixion of Saint Peter
_by Caravaggio
_in the Santa Maria del Popolo_Rome

나약함과 강인함의 대명사, 베드로 성인 (축일 6월 29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거장 카라바쵸가 그린 ‘성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공인 ‘베드로’로, 그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못 박힌 곳에 선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세 명의 사형집행인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 올립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등으로 십자가를 받쳐 올리고,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팔로 부둥켜안아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줄로 묶어 올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표정은 강렬합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며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가 지은 「나의 예수」라는 책에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언덕에서는 양 떼가 풀을 뜯고 있고, 유칼립투스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숲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들에는 노란색의 국화와 빨간색의 개양귀비꽃이 피어있으며, 호수 위에는 고기잡이 배가 떠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과 강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약한 모습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두려움에 떨며 떠나 달라던 것’,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물 위를 걸다가 무서워 물에 빠져 구해달라던 것’,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하던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묻자 슬퍼하던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던 것’,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슬피 울던 것’입니다.

반대로 강인한 모습으로는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칼로 대사제의 종을 내려친 것’, ‘주간 첫날,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치워졌다고 말했다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대중 앞에 나서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힘차게 설교한 것’, ‘불구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 ‘최고 의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으로서는 나약했으나 사도로서는 강인했습니다. 인간적 ‘나약함’이 사도적 ‘강인함’을 등에 업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 | 장경조 소피아(청계 본당)



2019년이 저물 무렵, 여태 경험해 본 적 없는 낯선 질병의 습격으로 일상이 마비되면서부터일까요? '선'이라는 나이를 맞으면서 신체적·정신적 아픔이 개인적 상처와 맞물리면서일까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깊게 고민하면서 방황할 때, 한줄기 빛처럼 등장한 후보 속 '하상신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는 제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기쁨과 위로와 활력을 주었습니다.

2년간 공부한다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 몸은 피곤하고 해야 할 숙제는 많아서 버겁기도

했지만, 구르는 낙엽만으로도 하하호호하며 웃던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듯 즐거웠습니다.

신학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도 감사했지만,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기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원주보 '포토에세이'는
교우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의 복음(마르 4,35-41)과 관련된 숨은 그림 5가지를 모두 찾아주세요!

숨은 그림 :

- 예수님이 타고 있던 "돛단배"
- 폭풍을 부르는 "구름"
- 맑아진 하늘에 보이는 "태양"
- 배에 실려있었을 "그물"
- "십자가"

SW 쿠키



▲ 응모하러 가기

※ 숨은 그림 찾기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6월 30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신원 베드로 作

거름이 지나치면



채소의 맛을 잃는다



사람도 지나치게 부유하다 보면



사람 맛을 잃는건 아냐



■ 수원교구의 수호자(주보)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2014년에 중단된 "수원교구의 수호자(주보)이신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2024년 올해부터 교구 내 전체 본당에서 매년 7월 9일에 봉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장 대리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님, 수원교구 제3대 교구장 최덕기(바오로) 주교님 영명축일

6월 24일은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님의 영명축일이며, 6월 29일은 최덕기(바오로) 주교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주교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도록 교구민들의 정성 어린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교를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와 최덕기(바오로) 주교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많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금주에 기억할 사제



이덕환(야고보) 신부
2012년 6월 26일 선종

젊은이 기도모임

'열린 찬양 미사', '열린 찬양 기도회'

열린 찬양 미사

일시 7.6(토) 16:00~18:00

열린 찬양 기도회

일시 7.20(토) 16:00~18:00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20:00~22:0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세례받은 청년

기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음카페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모임' 검색

문의 031) 360-7638

제2대리구 청소년3국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25(화) 10:3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3층 대성당

주례 문희종 주교

문의 031) 417-5322

사회복음화국 민족화해위원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2024년 수강생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이

신청 365일 신청가능

비용 첫걸음, 일반과정 5만 원

한 과목 수료 시 2만5천 포인트 지급

2과목 수강 시 10% 할인

3과목 수강 시 15% 할인

참고 <https://cyberbible.casuwon.or.kr>

문의 031) 360-7635, 010) 7470-7966

상설고해소

북수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246-8844~5

성남동 성당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문의 031) 754-0409

중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441-3531

평택 성당

일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문의 031) 654-2702

미사·피정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6.26(수) 10:00 성남동 성당
 6.28(금) 10:00 신갈 성당
 7. 2(화) 19:30 오산 성당
 7. 5(금) 10:00 중앙 성당
 7. 8(월) 10:00 분당성마태오 성당
 7.10(수) 10:00 안성 성당
 7.12(금) 10:00 시화성바오로 성당
 문의 02) 3673-2525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스카폴라 축일미사

일시 7.16(화) 12:30~16:30
 장소 권선동 성당 2층 대성당
 미사 이성호 주교, 사제단
 문의 031) 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노틀담 성소 침묵 피정

일시 7.19(금) 20:00~21(주일) 16:00
 장소 인천 노틀담 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9명
 문의 010) 3930-6730 노틀담 수녀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일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내용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비용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 9363-7784 대구가톨릭교수회

성모 승천 전례 피정

일시 8.13(화) 16:00~15(목) 13:00
 장소 왜관 피정의 집
 비용 30만 원
 계좌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참고 접수 후 입금
 문의 010) 6791-0071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 화요일 12:30~16:00
 장소 가톨릭회관 7층(명동)
 강사 6.25 이상기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 5514-4077 토아올람

미리내 성체조배 피정

일시 7.9(화)~11(목) 2박 3일
 장소 묵상의 집(미리내 성지 내)
 내용 '피앗마히' 피정
 지도 이관배 신부
 주제 일상의 삶을 통한 봉헌 생활
 문의 010) 2369-9290
 미리내 천주삼성성직수도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일시 예수마음기도 4박 5일 7.10~14, 7.22~26
 이나시오영신수련 4박 5일 7.22~26
 여름 청년 피정 2박 3일 7.19~21
 사계절(여름) 피정 7.13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참고 www.jesumaum.org
 문의 010) 9099-2337 성심수녀회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 피정
 일시 7.5 매월 첫 금요일 10:00~15:30
대침묵 피정
 일시 8.16(금)~18(주일)
다네이 영성 수련
 일시 8.22(목)~25(주일)
 10.25(금)~27(주일)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 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 피정

일시 6.29(토) 14:00~30(주일) 14:00
 비용 2만 원(청소년 무료)
 강사 김웅렬 신부, 김완식
 진행 고영민(음악부)
 문의 043) 213-9103, 010) 5482-6744
 청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교육·모집

제57차 학술발표(페스티벌)

일시 6.29(토) 14:00~17:20
 장소 수원가톨릭대학교 하상관
 주제 K.시노달리타스 교회 만들기
 발표 한민택 신부 외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주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문의 031) 227-7857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은사 세미나

일시 7.6~27 매주 토요일 13:00~18:00
 장소 제2대리구청 교육관
 대상 누구나(성령세미나 수료한 분)
 마감 6.30(주일)
 강사 박현민 신부, 박희전 신부, 최황진 신부
 박효철 신부, 김현우 신부 외
 회비 3만 원(교재비 별도)
 준비 개인컵
 문의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2024학년도 후기 2차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학생 모집
 과정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모집 6.17(월)~7.7(주일)
 장소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의회관
 (서울성모병원 내)
 참고 welfare.catholic.ac.kr
 문의 02) 3147-8781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각 6주)

개강 7월 개강, 각 6주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 해설
 일시 화요일 19:30. 주원준 박사
룻을 읽자!
 일시 수요일 10:00. 김민 신부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일시 목요일 10:00. 박해원 강사
 참고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신청 02) 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예수회센터

어머니·아버지 학교 온라인(ZOOM) 교육

일시 6.28~7.19 매주 금요일
 19:30~21:30(4주)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마감 6.25(화)
 비용 4만 원
 주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문의 02) 744-0840 햇살사목센터

음악 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음악 치유 피정반
 일시 7.15~29 매주 월요일 13:30~16:30
음악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일시 7.16~30 매주 화요일 13:30~16:30
 장소 한국음악치료연구소(대청역)
 회비 15만 원
 문의 010) 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일정 미국·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참고 www.pbccamp.com
 문의 02) 734-0999 가톨릭평화방송

수원교구 시니어 합창단 '베아피' 단원

연 습 매주 수요일 11:00
 장 소 제2대리구청
 대 상 성가대 경력이 있는 만 60세~75세
 (수원교구) 남자 00명
 오디션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3:30
 문 의 010) 5497-6169, 010) 3211-4284
 수원교구 시니어 합창단 '베아피'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 수요일 18:00~20:30
 매주 토요일 10:00~12:3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9~13세
 접수 sjha0701@naver.com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8592-1851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일 13:30~16: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4층
 대상 37세 이하 남녀(전공 무관)
 참고 카카오플러스 친구
 카카오 오픈 채팅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문의 010) 3214-0797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신입 단원 및 파트선생님 모집
 연습 매주일 14:00~17:00
 장소 제2대리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대상 첫영성체를 마친 초4~대학생(수원교구)
 악기전공자(대학 재학생 이상)
 신청 annes0201@naver.com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6204-6022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수원가톨릭앗숨도미네(뮤지컬) 단원

연습 매주 화요일 21:00
 장소 앗숨도미네 연습실
 대상 뮤지컬 선교 사업에 동참할 교우
 (9세~60세 이하)
 신청 이메일(musical@adsumdomine.org)
 문자(010-9935-787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9935-7870
 수원가톨릭앗숨도미네

아르스노바 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 토요일 15:00~17:30
 장소 대학동 성당
 대상 성음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고 2024년 헌말 '메시아' 전국 정기 연주회
 문의 010) 9881-6008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가톨릭아르스노바)

기 타

스리랑카 성모성지 바티칸 공인 100주년

일시 8.19 스리랑카 순례 8일
 10.28 조지아 순례 9일
 문의 010) 2303-4174 기쁜순례 여행사

대전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내용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절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 (인근 성지)갈매못 순교 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방법 '요나 성당 연수원' 검색
 yonaresort.modoo.at
 문의 041) 934-7758 요나 성당

가톨릭 여성 상담소

운영 월~금 10:00~20:00
 토, 주일 10:00~14:00
 장소 안산생명센터 내, 수지구 상현동
 내용 심리상담(개인, 가족, 부부, 집단)
 심리평가, 심리교육
 참고 공인된 전문 상담사
 문의 031) 502-0668, 010) 5089-066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내용 국내입양상담
 참고 www.holyfcac.or.kr
 문의 02) 764-4741~3 성가정입양원

다솜터심리상담소

내용 대인관계, 부부,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문의 010) 9146-7654 다솜터심리상담소

채용·봉사자

수원교구청 직원

대상 관리국 계약직(경리 행정)
 마감 6.28(금)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 271-5028 근로 및 근무 조건
 031) 244-5002 제출 서류 및 전형 방법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산북 본당 사무장 / 채용 시
 향남 본당 사무원 / 채용 시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분당성마태오 본당 지휘자(유급) / 7.5(금)까지
 광남동 본당 지휘자(유급) / 채용 시
 남양 본당 지휘자·반주자 / 채용 시
 의왕 본당 지휘자·반주자(유급) / 채용 시
 화서동 본당 반주자(유급) / 채용 시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봉사자

자격 문서·한글, 워드, 디자인, 편집 등
 출판업무
 회원·후원, 상담, 교육, 피절 등 봉사업무
 홍보·인터넷, 디지털, 웹디자인, SNS 등
 외국어 영어, 아시아지역 언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학술·선교학, 신학, 철학, 종교학
 역사학, 인류학 등 석·박사 학위자
 문의 031) 333-1779, 010) 2925-1821

성 라자로 마을 한센인생활시설(치유의 집) 요양보호사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요양시설 근무자 우대
 운전면허(실제운전가능) 소지자 우대
 마감 채용 시
 접수 hslazarus@daum.net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 451-2214 성 라자로 마을

성소모임

기적의 메달과 함께하는 애덕의 모임

일시 7.20(토) 14:00~17:00
 장소 경기도 군포 수녀원
 문의 010) 4889-1830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일시 상시(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미리내 수도회 본원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내용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 모집
 문의 010) 5195-3217(성소부)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일시 수시
 장소 서울 후암동
 대상 만 40세 이하 여성
 문의 010) 5690-1099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성삼의 딸들 수녀회

일시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061) 382-2214, 010) 7159-9674
 성삼의 딸들 수녀회

문화산책

시간 및 공연 게재신청 : 홍보국(hongbo@casuwon.or.kr)



성령의 리듬 따라 춤추기

지금 교회는 서로가 만나며 경청하고 식별하여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사태를 식별하고 대응하며 새롭게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식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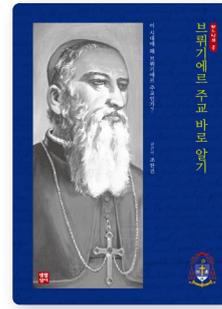
글 · 출판 | 데이비드 론스데일
· 위즈앤비즈
금 액 | 1만4천 원
문 의 | 031) 986-7141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책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이스라엘의 해당 성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성지 가이드북인 동시에 복음 말씀을 구체적인 사진과 정보와 더불어 생생하게 목상할 수 있는 영적 안내서입니다.

글 · 출판 | 이창훈·성바오로
금 액 | 2만 원
문 의 | 02) 945-2972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알기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으로의 선교에 자원하며 교황청이 조선에 대목구를 정식으로 설립하는데 공헌했습니다.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알아 오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글 · 출판 | 조한건·생활성서
금 액 | 1만4천 원
문 의 | 02) 945-5985

제46회 한국천주교회 창립 기념행사

- 일시 | 6.24(월) 11:00~12:30
- 장소 | 천진암 성지
- 내용 | 제245주년 기념 경축 미사
- 주례 |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뇰, 교구장 대리 문희종 주교
수원교구 제3대 교구장 최덕기 주교, 사제단 공동 집전
- 특전 | 참석자 전원에게 전대사 부여
- 문의 | 031) 764-5953 천진암 성지